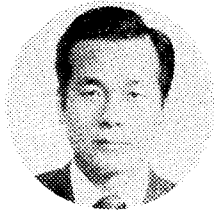


入 鄉 循 俗

—Do at Rome as
Romans Do—



陳 今 燮
(在美辨理士·藥學博士)

나는 지금도 大學時節 海兵隊에서 軍服務를 시작할 때를 잊을 수가 없다. 머리를 박박깎고 통일된 군모, 군복, 군화를 着用하고 있는 新兵訓練所의 신병들의 모습은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별천지였었다. 이 때 대부분의 신병들이 군모에 무슨 上部指示인양 “잊어버리자”라는 글을 새겨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로마에 가면 로마인과 같이 행동하라”는 격언이 있다. 우리 말로는 “入鄉循俗”이라는 어려운 單語이다. 아마도 신병들의 속셈은 고된 훈련중에 옛날의 화려했던 모든 일들을 말끔히 잊어버리고 現實에 充實하게 살자는 큰 眞理가 내포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0여년간 뒹고 익혀진 신병들의 뇌리에서 모든 것을 송두리채 잊어버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기에 늘 시선이 맞닿는 모자에, 그렇지 않으면 머리에 이글을 얹어 놓고 다니면 머리가 완전히 바뀌어 지겠지 하는 心算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곳 미국특허사무소에서 미국특허실무와 씨름한지도 옛날 3차에 걸친 미국연수기간

을 제산않고도 금년 10월이면 출원후 公開期間인 18개월이 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美國特許 實務에 생소함을 禁할 길이 없다.

과거 근 20년간 잊어버린 우리나라를 위시한 서독, 일본 등 대륙법 제통의 특허실무에 너무 익숙(?)한 탓일 것이다. 입향순속(do at Rome as Romans do)을 자주 뇌까려 보지만 現實 實務에서는 그렇지 않다. 특히 이중에서도 發明主義에 對한 法規中 미특허법 제102조 b항(37USC 102b)의 新規性상실의 조항에 가시다. 미국에 의 出願日字 1年以前에 (more than one year prior to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patent in the United States) 美國內外에 特許나 刊行物에 公開되거나(was patented or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in this or a foreign country) 또는 美國內에 公用, 販賣되지(in public use or on sale in this country)아니 하였으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1年前期間이 없는 바로 出願前... (出願主義)의 b條 1項과 종종 혼동이 되기 때문이다.

한밤중 서울서 장거리전화(한국은 데 낮이겠지만)가 와서 “한국에 이미 특허가 공고되었는데 또는 공고결정서가 나왔는데, 곧 공개가 되는데 미국에 출원할 수 있는 묘안이 없을까요?” 하는 질문을 접할 때 하마트면 NO(없습니다)를 연발하려는 충동을 느낀다. 이는 비법도 묘안도 아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공개 또는 공고된 후 1년내에는 미국에 出願이 可能하고 (우선권 주장은 할 수 없지만) 신규성이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다.

십일월이 오면 한국발명특허협회(KIPA)의 많은 특허맨들이 와싱턴으로 몰려온다. 이때 이분들이 얼마나 美國의 發明主義(First Invention System)를 理解하고 귀국할런지...

와싱턴의 가을 하늘은 서울의 가을하늘과 같이 높고 맑기만 하다.

<미국 와싱턴 Birch, Stewart, Kolasch & Birch 특허법률사무소에서>